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¹⁾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위기 청소년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기독교 교육상담의 가능성과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기상황과 대처양식에 맞추어 교육상담적 접근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가족/관계적 위기, 학업/진로적 위기, 심리/정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영적/신앙적 위기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처하는 교육상담적 접근을 치료 지향적, 성장 지향적, 예방 지향적 대처 등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회 내 위기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방법을 L. J. Crabb의 상담자 훈련 단계를 참고하여, 첫째, 전체 청소년 대상 위기대처 및 자아탄력성 강화 교육적 접근, 둘째, 위기 극복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 셋째, 코칭 및 멘토링 접근 등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교회에서의 교육상담적 가능성과 구체적인 교육상담적 방법들을 제시해 보았다.

중심단어 : 위기청소년, 자아탄력성, 기독교상담, 교육상담, 위기상황, 대처양식

-
- 논문 투고일: 2012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2년 5월 3일

*고신대학교

1) 이 논문은 2011년 고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여는 글

청소년기는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내적, 외적 변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공통적으로 발달과정 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의 인생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발달적 위기 외에도, 발달과 적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이 안팎으로 존재하므로, 개인 내적 위기상황과 외적 위기상황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청소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위기청소년이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거나 비행에 노출되어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at-risk Youth)²⁾이란 “학교에서의 적응 실패로 노동과 인생 활로의 성공적 전환을 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집단”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기상태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학교, 가족, 또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요인 등이 있지만, 청소년 개인의 정신 건강과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위기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와 요인들을 잘 이겨내고 학교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resilience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자아탄력성, 또는 적응유연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외부 환경에의 적응보다는 내적인 탄력성과 견디는 힘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아탄력성으로 번역하여

2) 지승희 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3.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내적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고위험 상황에서도 학교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하며 기능하는 능력인 적응유연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³⁾

교회 청소년도 일반청소년들과 비슷한 위기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내의 다양한 위기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은 동일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아서 함께 협력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위기청소년들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등지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교육상담적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처하는 교육상담적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교육에서의 교육상담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3) 위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이상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대학원, 2006); 이해리,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외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져 사용되고 있다.

II. 펴는 글

1. 위기청소년

1) 위기의 의미

위기(crisis)는 “어려운 혹은 결정적 시기를 뜻하는 말로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전환점”이라고 Webster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Collins⁴⁾는 “위기란 한 인간의 안녕에 위협을 주며,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사건 및 그러한 상황의 연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linebell⁵⁾은 “시간적으로 참으면 되는 위협이나 고통, 긴장 이상의 것”으로 설명한다. 정태기⁶⁾는 “위기란 자신의 삶에 중대한 위협을 느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포의 감정”으로 설명하며, “위기는 중요 생활 목표의 좌절 또는 생활양식의 혼란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감으로써, 평상시의 적응 방법이나 생활양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리적인 긴장을 느끼는 상태인데, 이 때 느끼는 긴장에는 흔히 계속되는 선택적인 갈등과 해소 및 평형을 되찾으려고 하는 압력 또는 생리적인 긴장감이 포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McSwain과 Tradewell⁷⁾은 위기를 신체적 부상이나 건강의 어려움에 처하는 신체적 위기, 심리적 자아에 고통을 받게 되는 자아 위기,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위기, 자연환경의 파괴나 빈약함에서 오는 환경 위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로 인한 영적 위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태기⁸⁾는 우발적 위기와 같은 상황적 위기와 보편적

4)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이혜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1993), 150-180.

5) Howard H.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30-45.

6)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1998), 61.

7) Larry L. McSwain & William C. Treadwell,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1), 110-120.

8) 정태기, 『위기와 상담』, 66.

위기나 단계적 위기와 같은 발달적 위기, 오랜 전통 문화로 인해 초래되는 위기인 사회 문화적 위기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첫째, 자신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을 상실하거나 상실의 위협에 부딪혔을 때, 둘째, 새로운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나 자신의 존재에 위협적인 인물 혹은 위협적 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 셋째,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였거나 변화를 겪었을 때에 개인은 인생의 위기를 크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Swihart와 Richardson⁹⁾은 위기 발생 요인을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한 요인, 둘째, 천재지변과 같이 창조 질서에 따른 자연적인 과정적 요인, 셋째, 타락한 세상과 자신 및 타인의 죄로 인한 영적 상실로 인한 요인 등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위기 극복을 위해 허락해 주신 5가지 영적 자원으로, 첫째, 하나님의 성품,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경, 셋째, 기도의 능력, 넷째, 성령의 위로,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꼽고 있다.

위험(危險 ; Danger)과 기회(機會 ; Opportunity)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위기(危機)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순간을 성공적으로 견디고 극복하였을 때,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생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위기란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위기청소년의 정의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을 갖거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 을 의미하는데, 이 정의를 보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위기청소년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

9) Judson J. Swihart & Gerald C. Richardson, *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Waco, TX.: Word Books, 1988), 150-160.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용 등¹⁰⁾은 가족환경이나 보호자의 행동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과 부정적인 가족상황과 학대로 인해 학업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13-18세(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21세까지)의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성경 등¹¹⁾은 위기청소년이 위기 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학교 뿐 아니라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의 가족 요인, 또래의 비행 여부, 또래와의 관계 문제 등의 또래 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 관련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등의 지역사회 요인이 관여되며, 청소년 개인의 정신 건강 및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정의¹²⁾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첫째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의 청소년, 요보호청소년), 둘째는 학업중단 청소년(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셋째는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이다.

10) 구분용 외,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10.

11) 유성경 외, 『청소년의 가출』(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5-10.

12) 한국청소년상담원,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8.

본 연구에서는 개인 · 가정 · 학교 · 사회 · 교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으로 인해 건전한 발달 및 적응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가족갈등요인, 일탈 및 비행 문제, 학업/진로 문제, 성격 및 대인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 각종 중독행위, 신앙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위기청소년의 유형

위기청소년의 위기 수준은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1단계는 '낮은 단계'로 별 문제가 없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한 청소년집단, 학업과 진로 상담이 필요한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2단계인 '중간단계'는 복합적 위기 상황은 아니나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집단이 이에 속하며, 3단계는 '높은 단계'로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청소년 집단으로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집중적 지도가 필요한 집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위기 수준에서 중간단계 이상의 위기수준에 처한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말한다. 이에 통해 위기청소년은 어느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위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며, 청소년 누구라도 위기청소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McWhirter 등은¹⁴⁾ 청소년 위기 중 1단계 최저위기는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 2단계 저위기는 최저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 학교,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으

13)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동반자 활동 매뉴얼』 (서울: 청소년위원회, 2005), 20-30.

14) J. Jeffries McWhirter, Benedict T. McWhirter, Ellen H. McWhirter, & Robert J. McWhirter,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Brooks Cole, 2004), 50-55.

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3단계 고위기는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 하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 4단계 위기 행동입문은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 5단계 위기행동이란 입문 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오익수와 김택호¹⁵⁾는 청소년 위기상황을 첫째, 청소년이 자주 경험하는 위기상황, 둘째,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는 위기상황, 셋째,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위기상황, 넷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위기의 강도와 영향력이 큰 위기상황,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드물게 경험하지만 위기의 강도와 영향력이 큰 위기상황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청소년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업수행,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성 피해 등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많이 관련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철경 등¹⁶⁾도 청소년의 위기상황 영역을 가족적, 교육적, 개인적, 사회적 위기상황 등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위기청소년들은 복수의 위기상황에 처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각각의 문제와 상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윤철경 등¹⁷⁾은 위의 네 가지 위기상황을 범주화하여 위기청소년의 규모를 연구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인구 10,515,700명 중 복합적 문제행동과 심각한 가족, 교육,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기군 청소년(47만 6천명)과 학습부진과 가족위기를 겪고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117만 6천명)은 전체 청소년 인구의 16%인 약 170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승희 등¹⁸⁾

15) 오익수·김택호, 『청소년 위기상담체제 개발 연구』(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20-30.

16) 윤철경 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 방안』(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25-35.

17) 윤철경 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 방안』, 35-40.

18) 지승희 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25.

은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1수준과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로 위험군에 속하는 2수준,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로 정상군에 속하는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고위험군에 속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1수준의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11%로 나타났으며, 2수준은 17.1%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2수준 이상의 위기군 청소년이 28.2%로 OECD 국가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추정치인 15-3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특징

1) 자아탄력성의 심리학적 이해

자아탄력성(resilience)란 라틴어의 *resiliens*에서 유래된 용어로 본래 물체의 신축적 혹은 유연한 성질을 일컫는데 사용되었던 용어이며,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압축되었거나, 구부러지거나,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크기나 형태로 되튀어오르거나 원래대로 회복하는 능력, 또는 불행이나 변화로부터 회복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으로, ‘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정, 능력’이라고 정의된다.¹⁹⁾ resilience는 국내에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유연성이나 적응유연성, 회복력, 탄력성, 리질리언스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²⁰⁾, 본 연구에서는 resilience를 개인 내적인 적응과 회복의 능력의 의

19) A. S. Mastern, K. M. Best, & N. Garmazy,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990): 425-444.

20) Resilience는 긍정심리학적 개념으로, 박현선(1998), 강문희(2008), 김동일·최수미(2008), 이상준(2006), 이해리(2007) 등의 연구에서 리질리언스, 탄력성, 자아탄력성, 회복력, 유연성, 적응유연성 등 개인의 내면적인 힘과 환경적 적응의 강도를 표현하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하는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 사용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아탄력성의 중심개념은 이와 같이 회복력과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Garmezy²¹⁾는 자아탄력성을 단순히 스트레스에 잘 견뎌내기보다는 “부정적 사건들로부터 회복(bounce back, rebound)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Werner²²⁾도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노출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lock과 Kremen²³⁾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적응유연성을 상황에 따라 긴장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자아탄력성이라고 기술하였다. Fine²⁴⁾은 자아탄력성을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으로, 넓은 의미로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보편적인 두 가지의 관점은 자아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보는 관점과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간 심리사회적 결과인가 혹은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 특성들인가 하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을 적응의

21) N. Garmezy,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s* 20 (1991): 459-466.

22) E. E. Werner,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4, no. 3 (1995): 81-85.

23) J. Block & A. M. Kremen,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996): 349-361.

24) S. B. Fine,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 (1991): 493-503.

결과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역경이나 위험상황에서도 1) 정신적 혼란이나 부적응을 초래하지 않고 2) 역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나 부적 정서로부터 곧 회복되며 3) 여전히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4) 나아가 이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을 보는 관점은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성격적 요인으로서 역경과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Block과 Kremen²⁵⁾은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며, 사회적 규칙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에 개방적인 사회적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Rauh²⁶⁾는 자아탄력성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는 특질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취약성(vulnerability)과는 반대로 “역경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2) 자아탄력성의 성격적 이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아탄력성은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길러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력, 유연성, 적응력 또는 탄력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자신이 처한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제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각 자체의 전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역사로

25) Block & Kremen, “IQ and Ego Resiliency,” 349–361.

26) H. Rauh, “The Meaning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Infanc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IV, no. 2 (1989): 161–173.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며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Meyer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 길을 가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며, 고통을 통하여 그의 완전하심에 맞추어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한다.²⁷⁾ 이러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위기를 대처하며 극복하고 회복, 적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길러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고전 10:13).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또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안식처나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최은영²⁸⁾은 그리스도인의 위기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적인 관점의 고난의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고난을 구원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생의 위기와 고난,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요셉은 자아탄력성을 인생 전체를 통해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요셉 외에도 많은 자아탄력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의 자아탄력성의 패러다임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적인 자아탄력성의 의미와 증진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

27) Frederick B. Meyer, *The Gift of Suffering*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91), 150.

28) 최은영, “기독교상담학, 고난에 대한 해석: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6호(2008): 265-291.

다.²⁹⁾

첫째, 자아탄력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증진되어진다. 요셉을 고난가운데서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다. 형제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요셉은 장차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꿈을 떠올렸으며, 애굽으로 팔려가는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할 때 자신을 밝히는 장면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창 45:5)’ 라고 고백한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창 45:7)’ 라고 말하며,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창 45:8)’ 고 고백한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소망함이 있었기에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성경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함으로써 증진되어진다.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서 자라던 요셉에게 형제들의 배신과 음모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원망과 분노, 배신감, 자포자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 것이다. 요셉의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상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요

29) 창세기 37장-50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참고하라.

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또한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품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하였을 것이다. 고난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앞날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강화해주며, 내적인 인내심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상황에 성실하게 대처할 때 증진되어진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실함으로 인하여 요셉은 보디발 가문의 총무직에 오를 수 있었다(창39:7-18). 고난의 상황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요셉의 위기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셉의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성실함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요셉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노예라는 신분 에 절망해서 낙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며 형들을 원망하는 시선으로 삶을 포기하듯 살았다면 결코 올 수 없는 기회였다. 이렇듯 고난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과 탄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개인적 탄력성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성실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개인적인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적인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증진되어진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후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중에 요셉에

게서 나타나는 자아탄력성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모습이다.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와 함께 갇히게 된 술맡은 관원장과 떡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된다(창40:2-4). 그들을 섬기던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근심거리를 묻는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힘들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욱 그 문제 속에 몰입되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편협한 시선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닦친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훗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아탄력성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때 증진되어진다. 요셉은 총리직에 오른 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끝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위기의 과정을 거쳐 온 성숙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갚아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더 큰 소망과 목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더 큰 빛을 탕감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빛에 연연해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아탄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위기청소년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Rutter³⁰⁾는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말하면서, 이는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며,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Walsh³¹⁾는 자아탄력성을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자 위기나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며 성장하는 적극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경이라 함은 학대나 폭력의 경험, 경제적 어려움, 인종적 차별, 가족의 정신질환, 부모의 이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Werner³²⁾는 하와이 가든 섬에서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불화, 부모 이혼 등의 고위험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 대해 30여 년간 추적 조사한 카우아이(Kauai) 종단연구를 통해서, 자아탄력성은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자아탄력성이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리·조한익³³⁾은 자아탄력성을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기술과 태도들, 능력들을 밝히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보았으며, 이상준³⁴⁾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 경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적응상태를 보일 때, 이들을 탄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30) M. Rutter,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 (1987): 316-331.

31) Froma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250.

32) Werner,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81-85.

33) 이해리·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2호(2006): 353-371.

34) 이상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25.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참고, 피하고,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경을 다룸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양육자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장소는 피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그러한 스트레스 작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하며, 중요한 환경적, 개인적 자원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인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내재화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³⁵⁾

자아탄력성이 다차원적이라는 사실은 고위험 아동들이 특정 생활 영역에서는 유능함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동들 중 거의 2/3가 학업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는 오직 21%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한 역경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외적으로는 성공적인 적응을 보인 이들이 종종 내현적으로는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들도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능력에 있어서 일치된 발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 연구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탄력성', '학업적 탄력성', '교육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행동적 탄력성', '인지적 탄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특정 유연성 및 탄력성의 개념 연구의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⁶⁾

35) L. P. Hernandez,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93), 101-103.

36) 이해리,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35-36.

3. 기독교 교육상담의 의미와 특성

1) 교육과 상담의 관계성

Clinebell³⁷⁾은 “교육과 상담은 하나로 연결되어있다. 둘 다 전인적 인간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적 목적을 가진다. 상담은 성장이 감퇴된 사람들이 좀 더 건설적인 가치와 태도,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재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 지향적 요법은 일상적인 관계와 학습상황에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목회상담자적 입장에서 교육과 상담의 목적의 동일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정숙³⁸⁾은 기독교 교육과 상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체계를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적 차이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규적 교육 (Formal Education) 활동”이고 기독교상담은 비정규적 교육 (Informal Education)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상담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승³⁹⁾은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이라는 두 전문 분야의 관계성을 아래와 같이 비교,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 상담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기독교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엡 4:13)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분의 품성을 본받도록 돕는 탁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상담이며, 기독교상담의 목적 역시 피상담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고전 10:31)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상담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효과적이다. 깊은

37) Howard H. Clinebell, *Growth Counseling*, 이종헌 역, 『성장상담』 (서울: 성장상담 연구소, 1994), 74-75.

38)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190-192.

39) 안경승, “기독교 상담과 가르침의 관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 (2006): 237-239.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베풀 줄 아는 교사와, 학습과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의 기술적이고 능력 있는 지도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한 개인을 도울 수 있게 한다. 상담자로서의 교사와 교사로서의 상담자는 이상적으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돌보는 교사요 상담자로서의 지도자의 모델을 보여 준다.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입하셨던 비유적 접근은 학습자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출발점을 찾는 상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알게 될 때 형성되는 인지의 재구조화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은 고유한 실천신학의 분야로서 그 학문적 전문성을 더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 상담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함께 통합적 노력을 해 나갈 때에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 성장시키는 귀한 역동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상담 : 상담의 예방 및 교육적 접근

전통적으로 상담은 문제를 가진 한 개인이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점점 상담 현장의 현실과 급변하는 세상의 추세에 부응하여, 상담 역시 치료적이고 통찰지향적인 장기상담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해결지향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적 방법을 통합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담이라는 활동의 스펙트럼을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상담은 첫째, 전통적인 문제해결/치료적 접근과 둘째, 예방/교육적 접근이라는 두 접근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해결/치료적 접근은 내담자의 삶 가운데 이미 발생하여 해결과 치료를 도와주어야 하는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반면, 예방/교육적 접근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하여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인생의 경험의 폭이 좁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은 예방, 교육적 차원의 과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육상담(education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치료상담(therapeutic counseling)과는 구별되는, 내담자의 예방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 접근을 상담의 한 차원으로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안경승⁴⁰⁾은 교육과 상담을 접목하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 발생 후 치료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개인의 태도 형성과 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예방 및 성장 지향적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생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비에 그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심리적 적응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1)스스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자세, 융통성, 결단력, 모험심, 지각력 등과 같은 태도, (2)내담자들의 가능성, 정체감, 대인관계 능력, 가치관 또는 의사결정능력 등에 대한 건강한 성장, (3)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지력, 활력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해 해결 방식, 풀어가는 절차, 과정 이해를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내담자를 돕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문제 상황에 처할 때 적합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성취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서 지속적인

40) 안경승, “기독교 상담과 가르침의 관계”, 239-241.

점검을 하는 과정을 배우게 한다. 개인에게 닥친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임상상담의 학문적 근거를 서구 심리학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인문, 사회, 행동과학의 여러 다른 학문 분야에도 확장하는 것인데,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상담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내 위기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방/교육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Adams⁴¹⁾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막 3:14) 가르침(teaching)과 상담(counseling)을 통해 제자화 되었으며, 권면과 가르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골 1:28, 3:16),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좋은 상담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가르침(formal teaching)이 필수적이며, 피상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 줄 때 “무슨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배우도록 강권해야 한다”고 말한다. Clinebell⁴²⁾은 “목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아주 훌륭한 상담 가치들은 창조적 교육과 역동적 상담의 기술들의 혼합을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도움은 교육적 상담이라고 불리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Crabb⁴³⁾은 그의 상담 체계 중에 2단계에서 피상담자의 문제 행동을 성경적 행동으로 바뀌도록 상담자가 “권면(exhortation)”해야 하며, 3단계에 해당하는 문제 사고는 성경적 사고로 변

41)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122-141.

42) Clinebell, *Growth Counseling*, 74-75.

43)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9), 167-169.

화하도록 “교회(enlightenment)”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Kirwan⁴⁴⁾은 세 단계의 상담과정에서 첫 번째 소속감의 공유(Imparting a Sense of Belonging) 단계와 세 번째 봉사(Service)의 단계 사이에 “교회”(Edification)의 단계를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 교회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가운데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특별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내면화하게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Collins⁴⁵⁾는 제자화 상담에서 상담자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서 내담자에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또한 기독교 상담이 첫째,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 치유(traditional therapy),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 셋째, 코칭(coaching)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히 상담의 코칭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담에 대한 코칭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학습과 훈련, 그리고 조언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Clinebell⁴⁶⁾ 역시 교육적 상담자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극복하는 기술들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코칭과 같다고 함으로써, 교육상담과 코칭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4.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

1) 교회 청소년의 위기유형과 대처 양식

본 연구에서는 윤철경의 위기상황 분류⁴⁷⁾를 보다 구체화하여, 교회 청

44)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84), 225-226.

45)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41-42.

46) Clinebell, *Growth Counseling*, 74-75.

47) 윤철경 등은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가족적 위기상황, 교육적 위기상황, 개인적 위기상황, 사회적 위기상황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소년의 위기상황을 가족/관계적 위기상황, 학업/진로적 위기상황, 심리/정서적 위기상황, 사회/문화적 위기상황, 영적/신앙적 위기 상황 등 5가지 위기상황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가족/관계적 위기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조, 가족 해체, 가정 빈곤, 가정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한 가족 위기와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관계적 위기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의미한다.

둘째, 학업/진로적 위기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인 학교와 학습과제의 수행을 둘러싼 위기상황, 그리고 인생의 진로 결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각종 위기상황 등을 의미한다.

셋째, 심리/정서적 위기는 위기 가운데 경험한 내적 상처와 타인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망, 증오, 미움, 외로움, 죄책감, 좌절감, 열등감, 소외감, 상실감, 슬픔, 책임감 등 다양한 종류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이로 인한 심각한 내면적인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문화적 위기는 교우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와 각종 여가, 오락, 유흥활동, 게임중독 등과 같은 문화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다섯째, 신앙/영적 위기로서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위기로서, 위기 상황의 결과 경험하게 되는 신앙 영적 위기도 있고, 신앙 영적 위기의 결과 경험하게 되는 생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위기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위기를 의미한다.

교회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아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위기상담의 대처 양식은 일반적으로 치료 지향적 대처, 성장 지향적 대처, 예방 지향적 대처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48) 강연정, “위기유형과 대처방식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154-157.

같다⁴⁹⁾.

먼저, 치료 지향적(Therapeutic-oriented) 대처 양식이란 위기청소년들이 이미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청소년의 전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미 발생한 문제가 더욱 심화됨으로써 미치게 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문제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지향적 대처는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개입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청소년들이 상담자에게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문제해결이나 지원에 그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재발하거나 치료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장 지향적(Growth-oriented) 대처 양식이란 현재 처해진 위기상황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증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성장 지향적 대처 양식은 두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자원들을 발굴하여 개발,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긍정적인 관점으로 현재의 상황을 재인식하고 재구성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 자원의 개발과 새로운 관점의 정립으로 말미암아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차츰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을 재인식하고 재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적이며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 지향적(Prevention-oriented) 대처 양식이란 위기청소년

49) 강연정, “위기유형과 대처방식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상담”, 148-150.

년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위기상황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예방 상담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개입이요, 또 하나는 교육이다. 예방적 개입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예상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적 교육이란 저항할 수 없는 난관을 예상하고 극복하고 피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악하고 타락된 세상 가운데에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

2) 청소년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

교육상담적 접근은 전통적인 일대일의 상담치료적 접근 외에 다양한 차원의 상담적 접근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회 내에서 핵심적인 교육상담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다. 이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맞는 단회 혹은 단기 특강, 세미나, 실습(workshop), 구조화 집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거나 주제를 심화하여 교육하는 중장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심층훈련을 할 뿐 아니라, 특정 위기 및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관련 내용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상담성경공부, 독서상담, 영화치료, 미술치료, 생태치료, 토론 모임, 지지그룹, 성품교육,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발달단계 별 모임, 주말학교, 그리고 멘토링과 코칭 등 다양한 교육상담적 접근방법들을 활용, 실시할 수 있다.

Crabb⁵⁰⁾은 교회 내 상담자 훈련 단계로 첫째, 전체 교인 대상의 예방/교

50)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167-169.

육적 접근인 격려 상담 단계, 둘째, 교회 내 사역자들, 즉 상담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권면 상담 단계, 셋째, 교회 내 개인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전문가 훈련을 위한 교회 상담 단계 등 3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교회 청소년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 내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대처 및 자아탄력성 강화 교육적 접근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위기대처양식 중 예방지향적인 대처와 연결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부모나 교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고민하거나 해결하고, 그 외에는 주위의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즉,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담하는 자기상담(self-counseling) 또는 주위 친구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동료상담(peer-counseling)을 주요한 상담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 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반드시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 가운데 적응하며 회복해 갈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체 대상의 교육상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상담적 접근방법은 주일 예배나 수련회를 활용한 단기 특강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며, 주말이나 수련회 등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한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하여 상담성경공부, 독서상담, 영화치료, 주제토론모임, 성품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교육적 상담접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 내 위기청소년들의 위기 극복 및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이다. 이들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다양한 위기를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경험하였던 청소년들로서, 이들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

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 및 지원전략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들이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이상 위기상황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성장지향적 대처와 치료지향적 대처와 연결될 수 있는 접근방법이지만, 전통적인 관점의 일대일의 상담치료적 접근과는 다르게 주제에 맞는 교육적 상담접근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친구관계, 가족관계, 이성문제, 성격문제, 학업 및 진로 등 주요한 주제 별 모임을 구성하여 구조화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주제에 맞는 상담성경공부나 독서상담모임을 한다든지, 영화치료나 미술치료, 토론 모임, 지지그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내적인 힘을 길러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교회 내 위기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코칭 및 멘토링 접근이다. G. R. Collins는⁵¹⁾ 종래의 상담(counseling)이 점차적으로 코칭(coaching)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담의 코칭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담의 코칭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학습과 훈련, 그리고 조언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코칭이란 한 개인이나 그룹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칭(coaching)과 멘토링(mentoring), 그리고 제자훈련(discipleship training)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서로 간에 공통점과 유사성이 많이 있는 용어이다. 특히 코칭과 멘토링은 더욱 그러한데, 엄밀히 말하자면, 멘토링을 좀더 성공하거나 자리잡은 선배 또는 교

51)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41-42.

사가 멘터를 지도하고 조언하여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코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어떻게 행할지 결론을 내리고 격려자이자 응원자인 코치의 인도를 따라 어떤 행동을 할 때, 코치는 성공한 전문가가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청소년을 도울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제자훈련을 훨씬 좁은 의미에서 어린 신자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훈련을 도모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⁵²⁾

교육상담적 접근을 하든지 치료적 접근을 하든지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성 가운데 자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으며, 상담자의 인격과 신앙이라는 바탕 위에서 상담사역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교회는 교회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독교 교육과 상담은 그 방향성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제외하고 예방, 교육, 발달, 성장 지향적인 모든 측면은 교육상담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담의 측면들이며, 교회 교육적 맥락에서도 크게 이질감없이 실시될 수 있는 상담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 잘 적응하는 특성으로써,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조차

52) Gary R. Collins, *Christian Coaching*, 정동섭 역, 『크리스찬 코칭』 (서울: IVP, 2004), 21-25.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을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resilience)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정/관계적 위기상황, 학업/진로적 위기상황, 심리/정서적 위기상황, 사회/문화적 위기상황 등 5가지의 위기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하여 치료 지향적 대처, 성장 지향적 대처, 예방 지향적 대처 등 3가지 위기상담의 대처 양식에 맞추어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Crabb의 상담자 훈련단계를 수정하여 교회 내 위기청소년들의 위기대처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적 접근방법에 관해 정리하였다. 다양한 교육상담적 접근을 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위기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의 위기 청소년들에게 위기대처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상담적 접근을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작적응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인 자아탄력성을 증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강경호. 『위기와 상담 I, II.』. 서울: 한사랑 가족상담연구소, 2000.
- 강연정. “위기유형과 대처방식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139-164.
- 강문희 외. 『청소년의 탄력성』.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 구본용 외.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 김동일·최수미. “폭력노출 청소년의 발달적 적응을 위한 통합적 매개모형: 폭력노출리질리언스와 환경적 보호요인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2008): 227-246.
-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업적 탄력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 안경승. “기독교상담과 가르침의 관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6권 (2006): 235-259.
- 오익수·김택호. 『청소년 위기상담체제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1998.
- 유성경 외. 『청소년의 가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윤철경 등.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이상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대학원, 2006.
- 이해리.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7.
- 이해리·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2호(2006): 353-371.
- 이장호.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1.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 1998.
- 지승희 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서울: 청소년위원회, 2005.

- 최은영. “기독교상담학, 고난에 대한 해석: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6호(2008): 265-291.
- 한국청소년상담원. 『위기개입 :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한국청소년 상담원, 2006.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2.
- Block, J. & A. M. Kremen. “IQ and E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996): 349-361.
- Clinebell, Howard H.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 Clinebell, Howard H. *Growth Counseling*. 이종현 역. 『성장상담』.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4.
- Collins, Gay R.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외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1993.
- Collins, Gay R. *Christian Coaching*. 정동섭 역. 『크리스찬 코칭』. 서울: IVP, 2004.
- Crabb, Lawrence. J.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9.
- Fine, S. B.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 (1991): 493-503.
- Garnezy, N.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s* 20 (1991): 459-466.
- Garnezy, N.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993): 127-136.
- Hernandez, L. P.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93.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84.

- Luthar, S. S.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1991): 220-242.
- Mastern, A. S., K. M., Best, & N. Garmazy.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990): 425-444.
- McSwain, Larry L., & William C. Tradewell.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1.
- McWhirter, J. Jeffries, Benedict T. McWhirter, Ellen H. McWhirter, & Robert J. McWhirter.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Brooks Cole, 2004.
- Meyer, Frederick. B. *The Gift of Suffering*.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91.
- Rauh, H. "The Meaning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Infanc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IV, no. 2 (1989): 161-173.
- Rutter, M.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 (1987): 316-331.
- Swihart, Judson J. & Gerald C. Richardson. *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Waco, TX.: Word Books, 1988.
- Walsh, Froma.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Werner, E. E.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4, no. 3 (1995): 81-85.
- Wolin, S. & S. J. Wolin. "The Challenge Model: Working with Strengths in Children of Substance-Abusing Parents." *Child and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5 (1996): 243-256.

【 Abstract 】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for Enhancement of Resilience of Youth in Crisis in Church

Yeon Jeong Kang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for the pos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al counseling approach in order to help Christian youth in crisis to adjust and function more effectively in churches,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by improving resilience, which is their inner resource to overcome and recover from crisis or problem situations in their liv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the youth in crisis and resilience, this researcher outlined the pos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al counseling and its methodology, and then finally surveyed educational counseling approach to the Christian youth's crisis and their response modality. This research categorized 5 types of crisis situations in the youth's life: family/relational crisis, educational/vocational crisis, psychological/emotional crisis, social/cultural crisis, and spiritual/faith life crisis. By dealing with educational counseling approach to these crisis situations from the three dimensions, which are therapeutic-oriented response, growth-oriented response, and prevention-oriented response, this research seeks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counseling in churches where they can help and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Christian youth in crisis and thereby suggest specific educational counseling programs and methods.

Key words: youth in crisis, resilience, Christian counseling, educational counseling, crisis situation, response modality